다산 정약용의 중국역학사(中國易學史) 인식

- 『역학서언(易學緒言)』을 중심으로*

임 재 규**

- 1. 서론
- Ⅱ. 한대(漢代) 상수학에 대한 다산의 인식
- Ⅲ. 경방과 초연수의 재이설(災異說)에 대한 다산의 인식
- IV. 왕필의 『역』해석에 대한 다산의 인식
- V. 송대(宋代) 도서학(圖書學)에 대한 다산의 인식
- VI. 정이(程頤)의 의리학적 『역』해석에 대한 다산의 인식
- VII. 양만리(楊萬里)의 사학적(史學的) 역학과 다산 역학
- Ⅷ. 결론

Ⅰ. 서론

규장각 소장 자료 중 중국 역학 관련 문헌은 약 100여 건이 존재하며, 여기에는 당대까지의 중국역학사의 주요한 문헌이 거의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한나라 초연수(焦延壽)의 『초씨역림(焦氏易林)』(焦延壽(漢)著:唐琳(明)訂, [17世紀 中盤-20世紀 初(淸 年間:1644-1911)], 奎中4782-v.1-6), 위나라 왕필(王弼)의 『주역겸의상경(周易兼義上經)』(王弼(魏)等註:陸德明(唐)撰;孔穎達(唐)正義;李長春(明)等奉勅重校刊, 萬曆

^{*} 이 논문은 2014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국내 신진학자 초청 연구교류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

14年(1586), 奎中 2783의 1-v.1-4), 송나라 정이(程頤)의 『주역정씨전 (周易程氏傳)』([17世紀 初-20世紀 初(清 年間:1616-1911)], 奎中 5252-v.1-4). 송나라 양만리(楊萬里)의 『성재선생역전(誠齋先生易傳)』 ([18世紀], 奎中 1553-v.1-8. 奎中 1554...), 송나라 주희(朱熹)의 『주 역본의(周易本義)」([萬曆28年(1600)]. 奎中 4339). 원나라 오징(吳澄)의 『역찬언(易纂言)』(吳澄(元) 學;談自省(明) 等校;黃應登(明) 重校. [萬曆42 年(1614) 序], 奎中 3382-v.1-4), 명나라 호광(胡廣) 등이 편찬한 『주 역전의대전(周易傳義大全)』([18世紀 後半 以後], 奎中 1-v.1-14, 奎中 2-v.1-...). 명나라 내지덕(來知德)의 『역경집주(易經集註)』(來知德(明) 註;崔華(清) 重訂;崔巒(清) 等校, [康熙27年(1688) 序], 奎中 4695-v.1-10), 청나라 이광지(李光地) 등이 편찬한 『주역절중(周易折 中)』(「康熙54年(1715)」, 奎中 2645-v.1-10, 奎中 264...) 등등 중국역 학사의 주요 저작들이 대부분 소장되어 있다. 이는 조선후기 한국과 중 국의 문헌 교류가 어떠했는지를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당시 조선 은 선진사회라 할 수 있는 청나라의 학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 며, 따라서 조선의 국가와 사회는 청나라의 문헌을 수입하는데 많은 관 심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후기의 대표적인 유교지식인인 다산 정약용은 규장각 초계문신으로 재직하면서 당대의 중국 문헌을 섭렵할 수 있는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었음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중국에서 수입된 최신 학술자료는 당대 유교지식인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다산 정약용도 이러한 학술자료를 받아들여 자신의 학문적 성취에 적극 활용했다.

본 연구는 다산 정약용의 학문적 업적 중 역학(易學) 분야에 한정하여 다산이 중국 역학(易學)의 학문적 성취를 어떤 수준으로 받아들였으며, 나아가 이에 바탕하여 어떤 학문적 성과를 이루었는지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기본적인 방향은 다산의 중국역학사의 주요 저작들에 대한 평가가 어떠했으며, 이를 통해 다산의 중국역학사에 대한 인식이 어

떠했는지를 고찰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사고전서총목제요(四庫全書總目提要)』에 나타난 중국역학사 분류를 방법적인 틀로 원용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사고전서총목제요(四庫全書總目提要)』에서 보여준 '양파육종(兩派六宗)'이라는 중국역학사 분류가 가장 표준적인 분류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주지하듯이 '양파'는 상수파(象數派)와 의리파(義理派)이며, 육종은 한대(漢代) 상수로 역을 해석한 전통, 경방과 초연수의 재이설(災異說)에 입각하여 역을 해석한 전통, 진단과 소옹(邵雍)의 도서학(圖書學)에 근거하여 역을 해석한 전통, 왕필이 제창한 노장으로 역을 해석하는 전통, 호원과 정자의 유학의 의리로 역을 해석하는 전통, 이광과 양만리의 역사적 사실로 역을 증명하는 전통 등이다.」 전자의 세 가지 전통은 상수파에 속하며, 후자의 세 가지 전통은 의리파에 속한다.

이러한 '양파육종'의 분류법에 근거해서 다산이 중국역학사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졌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보다 유효한 방법론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본 연구에서 중국역학사에 나타나고 있는 수많은 역학 자들의 저작을 모두 살펴볼 수 없으며, 다만 다산이 중국역학사의 주요 한 흐름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졌는지를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일정한 의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산의 『역학서언』에는 위에서 언급한 '양파육종'의 주요 인물과 저작에 대한 언급과 논평이 실려 있다. 따라서 다산의 중국역학사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역학서언』이 주요 텍스트가 될 수밖에 없다.

'양파육종'중 한대(漢代) 상수로 역을 해석한 전통과 관련해서 『역학서인』의 「이정조집해론(李鼎祚集解論)」, 「정강성역주론(鄭康成易注論)」, 「한위유의론(漢魏遺義論)」 등이, 진단과 소옹(邵雍)의 도서학(圖書學)에

¹⁾ 王雲五主持, 『合印四庫全書總目提要及四庫未收書目禁燬書目(一)』(臺灣商務印書館,1978),「四庫全書總目提要」,一,經部,易類一,2. "左傳所記諸占,蓋猶太卜之遺法,漢儒言象數,去古未遠也.一變而為京、焦,入於磯祥,再變而為陳、邵,務窮造化,易遂不切於民用.王弼盡黜象數,說以老莊.一變而胡瑗、程子,始闡明儒理,再變而李光、楊萬里,又參證史事,易遂日啟其論端,此兩派六宗,已互相攻駁。"

근거하여 역을 해석한 전통과 관련해서 「소자선천론(邵子先天論)」등이, 왕필이 제창한 노장으로 역을 해석하는 전통과 관련해서 「왕보사역주론 (王輔嗣易注論)」, 「한강백현담고(韓康伯玄談考)」 등이, 호원과 정자의 유학의 의리로 역을 해석하는 전통과 관련해서 「주자본의발미(朱子本義發微)」등이 서로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경방과 초연수의 재이설에 입각하여 역을 해석한 전통, 이광과 양만리의 역사적 사실로 역을 증명하는 전통과 관련해서 다산이 전문적인 평론을 남긴 것은 없지만, 『역학서언』 및 『주역사전(周易四箋)』에서 간간이 이와 관련된 다산의 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

다산 정약용의 중국역학사 인식과 관련된 국내외의 연구논문은 아직 발표된 바가 없다. 다만 다산 정약용의 중국역학 관련 저작에 대한 비 판과 논설이 담겨있는 『역학서언』에 대한 연구는 부분적인 성과가 있으 며, 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김왕연. 「정다산의 「소자선천론(邵子先天論)」 비판」. 『철학』 42 (1994) 김인철, 「다산의 "선천역"에 대한 비판 - 「소자선천론」을 중심으로」、 『동양 철학연구』31(2002) 방인, 「다산의 명청역학(明淸易學) 비판(批判)」, 『철학연구』 84 (2002) , 「다산의 이광지(李光地) 역학(易學)에 대한 비판」, 『철학연구』 90(2004) ____, 「다산의 도가역학(道家易學) 비판」, 『철학연구』 108 (2008) . 「정약용의 「주자본의발미(朱子本義發微)」 연구」. 『다산학』 19 (2011), 「정약용의 소옹 비판 ― 「팔괘차서도」와 「팔괘방위도」를 중심으로」, 『국학연구』21 (2012) , 「정약용의「한위유의론」연구」, 『다산학』 23 (2013) 장정욱, 「현산역간(玆山易柬)」, 『다산학』 4 (2003) , 「사수고점박(沙隨古占駁)」, 『다산학』 6 (2005) ___, 「왕보사역주론(王輔嗣易注論) 평석(評釋)」, 『다산학』 13 (2008) _____, 「한강백현담고(韓康伯玄談考)」, 『다산학』 19 (2011) , 「반고(班固)의 「예문지(藝文志)」에 대한 논평(論評)」, 『동서사상』 15 (2013)

다산의 『역학서언』에는 중국의 주요한 역학저작에 대한 총 21편의 논설이 실려 있다. 이 중 우리말로 번역된 것은 위에서 정리한 5편이 다. 나머지 16편은 아직 번역이 안 된 상태이다. 그리고 『역학서언』의 각 논설을 대상으로 연구한 논문은 대략 8편으로 소옹의 「소자선천론 (邵子先天論)」에 대한 연구가 3편이고. 「한위유의론(漢魏遺義論)」에 대 한 연구가 2편이며, 나머지는 「주자본의발미(朱子本義發微)」, 「내씨역주 박(來氏易註駁)」. 「이씨절중초(李氏折中鈔)」에 대한 연구이다. 이를 통 해 보면, 다산의 『역학서언』의 총 21편의 논설 중 우리말로 번역된 것 이 5편이고, 논문으로 연구된 것이 약 5편이다.

Ⅱ. 한대(漢代) 상수학에 대한 다산의 인식

『역학서언』에는 다산의 한대(漢代) 상수학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이정조집해론(李鼎祚集解論)」, 「정강성역주론(鄭康成易注論)」「한위유의 론(漢魏遺義論)」등의 논설이 존재한다. 이 중에서 「이정조집해론(李鼎 祚集解論)」가 특히 중요하다. 「이정조집해론(李鼎祚集解論)」에서 다산이 분석하고 있는 역서인 『주역집해(周易集解)』는 당나라의 이정조(李鼎 祚)2)가 한대(漢代) 이후 상수학의 역설을 집록한 책으로, 당시 역학계 의 주류이었던 왕필의 역학에서 배제되었던 한대(漢代) 이후 상수학자 의 역설을 보존하였던 점에 그 의의가 있다.3)『사고전서총목제요(四庫 全書總目提要)』에 의하면, 사고관신은 『주역집해(周易集解)』의 가치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왕필의 역학이 번성하여 하나라 시기의 역설이 마침내 없어졌으나. 천 백여 년이 지난 후에도 학자들이 괘를

²⁾ 당나라 資州 사람으로 관직은 秘書省 著作郞을 지냈다. 王雲五主持, 『合印四庫全 書總目提要及四庫未收書目禁燬書目(一)』(臺灣商務印書館, 1978),「四庫全書總目 提要」, 一, 經部, 易類一, 7 참조.

³⁾ 王雲五主持, 『合印四庫全書總目提要及四庫未收書目禁燬書目(一)』(臺灣商務印書 館, 1978),「四庫全書總目提要」,一,經部,易類一,8 참조.

지은 본뜻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책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진실로 보배로 여길만한 전적이다."4) 『주역집해(周易集解)』는 자하(子夏)·맹희(孟喜)·초연수(焦延壽)·경방(京房)·마융(馬融)·순상(荀爽)·정현(鄭玄)·유표(劉表)·하안(何晏)·송충(宋衷)·우번(虞翻)·육적(陸績)·간보(干寶)·왕숙(王肅)·왕필(王弼)·요신(姚信)·왕이(王廙)·장요(張璠)·향수(向秀)·왕개충(王凱沖)·후과(侯果)·촉재(蜀才)·적원(翟元)·한강백(韓康伯)·유헌(劉職)·하타(何妥)·최경(崔憬)·심인사(沈麟士)·우씨(盧氏)·최근(崔覲)·복만용(伏曼容)·공영달(孔穎達)·요규(姚規)·주앙지(朱仰之)·채경군(蔡景君) 등 30여 학자의 역설을 집록하고 있다.5)

「이정조집해론(李鼎祚集解論)」에 의하면, 다산의 『주역집해(周易集解)』에 대한 평가도 청대 사고관신의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당시 한위(漢魏)의 제가의 학설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이정조(李鼎祚)가 그 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없어질까 두려워 유명한 논설을 채집하여 『주역집해(周易集解)』 10권을 지어 후세에 전했으니 그 공이 진실로 크다 할 것이다. ······ 그 중에 순상과 우번의 설이 대체로 경문의 뜻에 부합했다. 따라서역학의 삼십여 가 중 집대성자는 구가(九家)이고, 구가 중 집대성자는 이가(二家)이다. 만약 이정조가 이가(二家)의 설을 널리 취해서 문호를 세우고, 나머지 제가의 옛 설을 보존하여 그 본원을 알게 했다면, 구가(九家)의 학설은 진실로 후세에 없어지지 않았을 것이다.6)

⁴⁾ 王雲五主持, 『合印四庫全書總目提要及四庫未收書目禁燬書目(一)』(臺灣商務印書館, 1978),「四庫全書總目提要」, 一, 經部, 易類一, 8. "蓋王學既盛, 漢易遂亡, 千百年後學者得考見畫卦之本旨者, 惟賴此書之存耳. 是真可寶之古笈也."

⁵⁾ 王雲五主持, 『合印四庫全書總目提要及四庫未收書目禁燬書目(一)』(臺灣商務印書館, 1978),「四庫全書總目提要」, 一, 經部, 易類一, 8. "所采凡子夏、孟喜、焦贛、京房、馬融、荀爽、鄭玄、劉表、何晏、宋衷、虞翻、陸績、幹寶、王肅、王弼、姚信、王廙、張璠、向秀、王凱沖、侯果、蜀才、翟元、韓康伯、劉巘、何妥、崔憬、沈驎土、盧氏(案盧氏《周易注》《隋志》已佚其名)、崔觀、伏曼容、孔穎達(案以上三十二家, 朱睦序所考)、姚規、朱仰之、蔡景君(案以上三家, 朱彝尊《經義考》所補考)等三十五家之說。" 다산의 「이정조집해론(李鼎祚集解論)」에는 초연수(焦延壽)、채경군(蔡景君)이 빠져있다.『易學緒言』,『定本 與猶堂全書17』(다산학술문화재단, 2012), 51.

^{6) 『}易學緒言』, 『定本 與猶堂全書 17』 (다산학술문화재단, 2012), 52-53. "當時漢

즉. 다산은 이정조가 한나라 시기의 상수학설을 집록하여 후세에 전 한 점은 역학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공헌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정 조의 공헌에 의해 한대(漢代)의 상수학설이 보존될 수 있었다고 생각했 다. 이정조가 집록한 30여 학자 중 특히 구가를 중시했으며, 구가 중에 서도 이가를 한대(漢代) 역학의 집대성자로 이해하고 있다. 다산에 의하 면. 구가는 경방(京房)·마융(馬融)·순상(荀爽)·정현(鄭玄)·송충(宋衷)·우번 (虞翻)·육적(陸績)·요신(姚信)·적원(翟元)이고. 이가는 순상(荀爽)·우번(虞 翻)이 된다.7) 따라서, 다산의 한대(漢代) 상수학에 대한 이해는 결과적 으로 구가에 대한 이해에 다름이 아니다. 다산의 이러한 인식은 다음과 같은 다산의 언급에서도 잘 나타난다.

"내가 살펴보건대. 『주역(周易)』은 진나라의 분서를 면해 경문에 빠진 바가 없었다. 『한서(漢書)』에 논한 바에 따르면, 상구(商瞿) 이래 사승이 끊이지 않 았고. 구가(九家)에 이르러 명성이 빛났으며. 그 훈고와 의리에 오류가 없는 듯 했다."⁸⁾

이러한 이유로 다산의 「이정조집해론(李鼎祚集解論)」에는 구가의 학 설이 가장 많이 인용되어 있으며, 다산 역학의 핵심이론인 역리사법의 원형도 잘 나타나 있다. "괘변(卦變)과 효변(爻變)의 법칙. 호체(互體)와

魏諸儒之說,猶有存者,李鼎祚懼其彌久而彌泯也,於是抄採名論,爲此集解十卷,以 貽後世, 其功誠大矣. …… 其中荀爽、虞翻二家之說, 多合經旨. 蓋易學三十餘家, 其集大成者九家也、九家之中、其集大成者二家也、若使李氏廣取二家之說、以建門 戶, 略存諸家之舊, 以知源本, 則九家之學, 眞得不亡於後世."

^{7) 『}易學緒言』, 『定本 與猶堂全書 17』 (다산학술문화재단, 2012), 51-52. "九家易, 文獻通考引陳氏說, 以爲漢淮南王所聘明易者九人, 荀爽嘗爲之集解, 今考淮南自云 九師有道訓二篇, 此名荀爽九家, 諸志俱云十卷. 釋文序錄列九家名氏, 爲京房、馬 融、鄭玄、宋衷、虞翻、陸績、姚信、翟子玄。倂爽而九云, 不知何人所集, 稱爽者 以爲主故也。 陳氏誤矣."

^{8) 『}易學緒言』、『定本 與猶堂全書 17』 (다산학술문화재단, 2012), 52. "鏞案, 周易 免於秦火,經文無缺,據漢書所論,商瞿以降,師承不絶,降及九家,名聞韡燁,其訓 詁義理官若無謬."

복체(伏體)의 예, 교역(交易)·변역(變易)·반대(反對)·반합(除合)의 묘가 하나라도 갖추어 있지 않음이 없다."의 결론적으로 다산은 『주역집해(周易集解)』에 대해 "오늘날의 학자들이 진실로 『주역』을 공부하고자 한다면, 오직 이정조의 『주역집해(周易集解)』 10권을 보배로 삼아야 할 것이다."10)라고 주장하고 있다.

Ⅲ. 경방과 초연수의 재이설(災異說)에 대한 다산의 인식

『사고전서총목제요(四庫全書總目提要)』의 역학사 분류에서 상수파의하나인 경방(京房, B.C.77~B.C.37)과 초연수(焦延壽)의 재이설은 동시대인 한나라의 주류 상수학과 다른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한대(漢代)의주류 상수학은 『주역(周易)』 해석에 있어서 물상, 호체, 괘변, 효변, 괘기, 납갑 등의 방법을 이용해 『주역(周易)』 경문을 해석하고자 한 것에반해 경방과 초연수의 재이설은 경전 해석보다 길흉화복을 점치는 술수에 가까웠다. 이러한 점은 『한서(漢書)·예문지(藝文志)』에도 잘 나와 있다.

『역경(易經)』12편:시(施), 맹(孟), 양구(梁丘) 3가.

『역전(易傳)』: 『주씨(周氏)』2편, 『복씨(服氏)』2편, 『양씨(楊氏)』2편, 『채공(蔡公)』2편, 『한씨(韓氏)』2편, 『왕씨(王氏)』2편, 『정씨(丁氏)』8편, 『고오자(古五子)』18편, 『회남도훈(淮南道訓)』2편, 『고잡(古雜)』80편, 『잡재이(雜災異)』35편, 『신유(神瑜)』5편(그림1부), 『맹씨경방(孟氏京房)』11편, 『재이맹씨경방(災異孟氏京房)』66편, 『오록충종약설(五鹿充宗略說)』3편, 『경씨단가(京氏段嘉)』12편.

『장구(章句)』: 시(施), 맹(孟), 양구씨(梁丘氏) 각 2편.

^{9) 『}易學緒言』、『定本 與猶堂全書 17』(다산학술문화재단, 2012), 53. "然卦變爻變之法, 互體伏體之例, 交易變易反對牌合之妙, 無一不露其約斑."

^{10) 『}易學緒言』, 『定本 與猶堂全書 17』(다산학술문화재단, 2012), 53. "今之學者 誠欲學易, 唯取李鼎祚集解十卷, 以爲拱璧."

모두 『역(易)』13가, 294편이다.11)

위의 인용 중『역전』부분에서 "『주씨(周氏)』2편. 『복씨(服氏)』2편. 『 양씨(楊氏)』2편, 『채공(蔡公)』2편, 『한씨(韓氏)』2편, 『왕씨(王氏)』2편, 『 정씨(丁氏)』8편. 『회남도훈(淮南道訓)』2편" 등은 한대(漢代)의 주류 상 수학적 해석에 해당되고, "『고오자』18편, 『고잡』80편, 『잡재이』35편, 『 신유』5편(그림1부), 『맹씨경방』11편, 『재이맹씨경방』66편, 『오록충종약 설』3편, 『경씨단가』12편" 등은 재이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12) 물 론 이러한 책 대부분이 실전되어 전해지지 않지만. 책의 성격에 대해서 는 『한서·예문지』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한서(漢書) 유립전(儒林傳)』에 의하면. "경방은 초연수에게 역학을 배웠고. 초연수는 '맹희에게서 역학을 배웠다'고 하였다."13) 하지만 맹 희의 제자인 적목(翟牧)과 백생(白生)은 모두 초연수의 역학이 맹희의 역학이 아니라고 했다.14) 따라서 경방과 초연수는 한대(漢代) 역학의 주류적 흐름과는 다른 길을 걸었다고 할 수 있다. 경방은 재이에 특히 밝아서 당시 황제의 총애를 받았으나, 석두(石顯)의 참소를 당해서 주살 되었다.15) 초연수는 『역림(易林)』을 지어 하나의 괘가 효변하여 64괘로 변하고, 따라서 64괘는 4096괘로 변한다는 이론을 전개했다. 이러한 변괘설은 재이를 예측하기에 편리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

^{11) 『}易學緒言』、『定本 與猶堂全書 17』(다산학술문화재단, 2012), 73, "易經十二 篇,施、孟、梁丘三家.易傳,周氏二篇,服氏二篇,楊氏二篇,蔡公二篇,韓氏二篇,王氏二 篇,丁氏八篇,古五子十八篇,淮南道訓二篇,古雜八十篇,雜災異三十五篇,神輸五篇圖一, 孟氏京房十一篇,炎異孟氏京房六十六篇,五鹿充宗略說三篇,京氏段嘉十二篇.章句,施 孟梁丘氏各二篇. 凡易十三家.二百九十四篇."

^{12) 『}易學緒言』、『定本 與猶堂全書 17』(다산학술문화재단, 2012), 73-74. "又案古 五子、古雜、神輸、災異等書,是占驗袄祥之術,非經學也."

^{13) 『}易學緒言』、『定本 與猶堂全書 17』(다산학술문화재단, 2012), 77-78. "京房受 易梁人焦延壽(卽焦贛),延壽云嘗從孟喜問易."

^{14) 『}易學緒言』、『定本 與猶堂全書 17』(다산학술문화재단, 2012), 78. "會喜死.房 以爲延壽易卽孟氏學.翟牧白生不肯,皆曰非也."

^{15) 『}易學緒言』, 『定本 與猶堂全書 17』 (다산학술문화재단, 2012), 78. "房以明災 異得幸.爲石顯所譖誅."

다.

경방과 초연수의 재이설에 대해 다산은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평가는 다산의 인식을 잘 보여준다.

내가 살펴보건대, 음양재변이라고 하는 것은 가령 경방전에서 얘기하고 있는 몽기(蒙氣)와 일휘(日煇)로 인사를 점치고, 소식괘(消息卦)와 신하괘(臣下卦)가 상승(相乘)하면 재앙이 된다는 것이다. 그 술수는 본래 맹희에게서 비롯되었고, 경방은 이를 증식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경방이 이로 인해 자신을 망친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다.16)

다산은 『주역』이 점서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음양이나 벽괘·연괘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재이를 점칠 수 있다고 보지 않았다. 음양재이는 『한서·예문지』의 분류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술수에 해당 하므로, 다산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나아가 다산은 경방의 분괘 직일법이나 초연수의 효변설이 『주역』의 이론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내가 살펴보건대, 괘를 나누어 날에 배당하고 이것으로 재이를 점치는 것은 전하(田何)와 정관(丁寬)의 구법이 아니다. 초씨의 역은 여러 효가 어지럽게 움직이니, 하나의 괘는 변하여 63괘가 된다. 이것은 하나라와 상나라의 구법으로 『주역』이 쓰는 바가 아니다.17)

다산에 의하면, 『주역』의 전승은 전하(田何)에서 정관(丁寬)으로, 정관에서 시, 맹, 양구로 이어진다.¹⁸⁾ 『주역』은 진나라의 분서를 면했기때문에 이본이 존재하지 않았고, 위의 전승이 『주역』의 정맥이라 할 수

^{16) 『}易學緒言』, 『定本 與猶堂全書 17』(口산학술문화재단, 2012), 77. "案,陰陽災變者,如京房傳所論蒙氣日煇,以占人事,而消息卦臣下卦相乘爲擘者也.其術本起於孟喜,而京房增飾之耳.此易家之異端,房以此殺身宜哉!"

^{17) 『}易學緒言』, 『定本 與猶堂全書 17』(다산학술문화재단, 2012), 78. "案,京氏之 易,分卦直日,以占災異,非田何丁寬之舊法也.焦氏之易,諸爻亂動,一卦之變,六十有三. 此夏商舊法.非周易之所用也."

^{18) 『}易學緒言』, 『定本 與猶堂全書 17』(口산학술문화재단, 2012), 78. "又案,易經無二本,唯施孟梁丘之所傳,而施孟梁丘之學出於丁寬,則易者丁氏之學也。"

있다. 경방이 비록 분괘직일법(分卦直日法)을 맹희에 가탁하고 있지만, 다산은 부괘직일법이 맷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보다 19) 따라서 경방의 분괘직일법은 다산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리고 초연수의 효변설도 다산은 『주역』의 방식이 아니고. 하나라와 상나라의 옛 법으로 본다. 다산에 의하면. 『주역』에는 하나의 효만 변 하는 것이 허용되는 이른바 '일효변(一爻變)'만 존재한다. 따라서 '다효 변(多爻變)'을 주장하고 있는 초연수의 효변설은 다산에 의해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20)

Ⅳ. 왕핔의 『역』해석에 대한 다산의 인식

위나라 왕필(王弼, 226~249)의 역학은 역학사에 매우 지대한 영향 을 미쳤다. 특히 왕필의 역학은 당나라 공영달(孔穎達)이 편찬하 『주역 정의(周易正義)」에 수록된 이후 유교 경전의 표준이 되었다. 『사고전서 총목제요(四庫全書總目提要)』을 지은 사고관신은 왕필의 『주역주(周易 注)』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했다.

왕필의 역설은 비직에게서 나왔다. 비직의 역설은 지금 살펴볼 수 없지만, 순 상의 역이 비씨역 계열이고, 이정조의 『주역집해(周易集解)』에 그의 역설이 자못 실려 있다. 순상의 역은 대체로 효위(交位)의 상하(上下)를 궁구하고 괘 덕(卦德)의 강유(剛柔)를 분별하는 것으로 왕필의 『주역주(周易注)』와 대략 비슷하다. 그러나 왕필이 상수를 전부 폐하여 (주역의) 본질을 변화시킴이 더 욱 심했다. 객관적으로 논한다면, 의리를 천명하여 『주역(周易)』이 술수와 섞 이지 않게 한 것은 왕필과 한강백의 공이 매우 크지만, 허무를 숭상하여 마침 내 『주역(周易)』으로 하여금 노장에 들게 한 것은 왕필과 한강백의 허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 유학자들이 왕필의 『주역주(周易注)』에 대해 지나치

^{19) 『}易學緒言』、『定本 與猶堂全書 17』(다산학술문화재단, 2012), 120. "京房之學 假託孟喜,直日之法,不自孟喜始."

²⁰⁾ 다산의 '다효변'에 관한 관점은 『주역사전』의 「춘추관점보주」에 자세하게 나온 다.

게 좋아하거나 지나치게 싫어하는 것은 모두 (자기가 속한) 학파의 견해일 뿐 근거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²¹⁾

즉, 『사고전서총목제요(四庫全書總目提要)』에 의하면, 왕필 역학의 연원은 비직이라 할 수 있으며, 비직의 역학과 같이 왕필 역학도 주로 交位와 卦德의 분별을 통해 『주역(周易)』를 해석하고 있으며, 특히, 왕 필은 의리를 천명하여 『주역(周易)』가 술수와 섞이지 않게 한 공이 있다. 한편, 『주역(周易)』 해석에 있어 한대(漢代)의 번쇄한 상수를 모두 폐하고, 또 노장의 의리로 『주역(周易)』를 해석한 점은 왕필의 허물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고관신의 왕필 역학에 대한 평가는 비교적 객관적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다산은 왕필의 역학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심하게 비판을 가하고 있다. 다산은 『역학서언』의 「王輔嗣易注論」에 다음과 같이 왕필역학을 평가한다.

만약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 가본다면, 어찌 왕필의 역易이 화의 근원이 아니 겠는가? 괘변과 효변이 없어지고, 교역과 변역도 사라지고, 호체·복체·반대·반합도 말살되고 흔적도 없게 되어 모두 종잡을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오직 왕필이 좌도를 끌어들여 성스러운 경전을 어지럽게 한 것으로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안이다.22)

다산 역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역리사법의 기준에서 보면, 역리사법의 네 가지 이론 즉. 물상론, 추이론, 효변론, 호체론이 모두 왕필에

²¹⁾ 王雲五主持,『合印四庫全書總目提要及四庫未收書目禁燬書目(一)』(臺灣商務印書館,1978),「四庫全書總目提要」,一,經部,易類一,6等. "弼之說易,源出費直.直易今不可見.然荀爽易即費氏學,李鼎祚書尚頗載其遺說.大抵究爻位之上下,辨卦德之剛柔,已與弼注略近.但弼全廢象數,又變本加厲耳.平心而論,闡明義理,使易不雜於術數者, 弼與康伯深為有功.祖尚虛無,使易竟入於老莊者,弼與康伯亦不能無過.瑕瑜不掩,是其定評.諸儒偏好偏惡.皆門戶之見.不足據也.

^{22) 『}易學緒言』, 『定本 與猶堂全書 17』(다산학술문화재단, 2012), 104. "苟泝其源, 豈非王弼之易爲之禍首耶?卦變爻變之滅,交易變易之亡,互體伏體反對辟合之抹撥無 跡,都係汗漫,唯其援左道以亂聖經,爲千古罔赦之案,不可原也。"

의해 말살되어 버린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다산이 왕필 역학을 비판하 는 것은 매우 논리적인 귀결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왕핔은 노장의 의 리로 『주역(周易)』를 해석한 이단이기 때문에. 다산으로서는 더더욱 받 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다산의 다음과 같은 평가도 충분히 납득이 간다.

내가 살펴보건대. 정현과 왕필은 모두 괘변과 효변을 말하지 않았지만 그 설 은 같지 않다. 정현은 물상과 호체를 사용하였지만, 왕필은 이 두 가지를 모두 폐하였으니 더욱 허무맹랑하다.23)

위의 인용 이외에도 다산은 『역학서언』의 여러 곳에서 왕필 역학에 대해 가혹하리만치 비판을 가하고 있다.

Ⅴ. 송대(宋代) 도서학(圖書學)에 대한 다산의 인식

송대 도서학의 연원은 진단(陳摶. 871~989)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진단은 『역(易)』을 깊이 연구하여 여러 가지 도상을 그렸는데, 진단이 그린 도상은 목수(穆修, 979~1032)로 이어졌고, 목수의 학은 이지재 (李之才, 980~1045)로 이어졌고, 이지재의 학은 소옹(邵雍, 1011~ 1077)으로 이어졌다.24) 따라서 소옹의 도서학은 진단으로부터 이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소옹의 도서학은 주희에게 받아들여져 『주역본의(周易本義)』의 권수 에 실리면서 후대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청대 학자 왕무횡 (王懋竑, 1668~1741)의 고증에 따르면 주희는 『주역본의(周易本義)』

^{23) 『}易學緒言』, 『定本 與猶堂全書 17』 (다산학술문화재단, 2012), 54-55. "鏞案, 鄭王二家,皆不言卦變爻變,將無同矣,然鄭氏猶用物象互體,王氏並二者而廢之,益 孟浪矣."

²⁴⁾ 朱熹 撰. 廖名春 點校. 『周易本義』(北京: 中華書局. 2009). 17. "伏羲四圖.其說. 皆出邵氏.蓋邵氏得之李之才挺之,挺之得之穆修伯長,伯長得之華山希夷先生陳摶圖南 者.所謂先天之學也."

의 권수에 실린 9도에 대해 강하게 주장을 한 바가 없다. 따라서 『주역 본의(周易本義)』의 권수 9도는 주희의 문인에 의해 덧붙여진 것으로 이 해할 수 있다.25)

다산의 『역학서언』에는 송대 도서학과 관련하여 「소자선천론(邵子先天論)」이 존재한다. 「소자선천론(邵子先天論)」은 8편의 논설로 구성되어 있는데,26) 기본적으로 소옹의 선천학에 대한 비판이 주류를 이룬다. 그리고 그 비판의 내용은 첫째, 유교 경전에서 선천학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점이고, 둘째 선천학의 내용이 합리적인 기준에 위배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다산은 「論邵氏八卦次序之圖」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일(一), 이(二), 삼(三), 사(四)의 순서로 말할 것 같으면, 어머니(坤)가 나기도 전에 여섯 자식(六子)이 먼저 길러지고, 형(震)이 나기도 전에 여동생(妹)이 태어나니, 부모와 자식, 형제간의 질서가 흐트러져 계통이 서지 않는다. 어찌 천지의 이치가 본래 이와 같겠는가? 팔괘를 인륜의 질서라는 측면에서 보면, 일건(一乾), 이곤(二坤), 삼진(三震), 사손(四巽), 오감(五坎), 육리(六離), 칠간(七艮), 팔태(八兌)가 되고, 동서의 방위라는 측면에서 보면, 일진(一震), 이손(二巽), 삼리(三離), 사곤(四坤), 오태(五兌), 육건(六乾), 칠감(七坎), 팔간(八艮)이 된다. 옛 경전에서 말한 바는 오직 이 두 가지일 뿐이다.27)

소옹은 「복희팔괘차서도(伏羲八卦次序圖)」에서 팔괘의 생성 순서를 일건천(一乾天), 이태택(二兑澤), 삼리화(三离火), 사진뢰(四震雷), 오손 풍(五巽风), 육감수(六坎水), 칠간산(七艮山), 팔곤지(八坤地)로 제시하고

²⁵⁾ 胡渭 撰, 鄭萬耕 點校, 『易圖明辨』(北京: 中華書局, 2008). 267.

^{26) 1.} 論邵氏八卦次序之圖 2. 論邵氏八卦方位之圖 3. 論邵氏八卦先天之說 4. 論先 天橫圖九六七八之說 5. 論本義乾坤策數之義 6. 論河圖洛書參天兩地之義 7. 論河 圖老少互藏之法 8. 論河圖爲八卦之則

^{27) 『}易學緒言』, 『定本 與猶堂全書 17』(다산학술문화재단, 2012), 155. "雖以其一二三四之序言之, 坤母未生而六子先育, 震兄未生而兌妹先産, 母子兄弟之序雜亂無統. 何得云天地之理本自如此乎? 八卦以父母之倫序, 則一乾二坤三震四巽五坎六離七艮而八兌也. 以東西之方位,則一震二巽三離四坤五兌六乾七坎而八艮也. 古經所言.惟此二法."

있다. 이는 소옹의 이른바 '일분위이법(一分爲二法)'에 따른 결과이다. 하지만 이러한 팔괘의 생성 순서는 다산이 말하고 있는 옛 경전에는 찾 아볼 수 없는 내용이다. 즉. 『설괘전』에는 분명히 일건(一乾), 이곤(二 坤), 삼진(三震), 사손(四巽), 오감(五坎), 육리(六離), 칠간(七良), 팔태 (八兌)라는 인류의 질서와 일진(一震), 이손(二巽), 삼리(三離), 사곤(四 坤). 오태(五兌). 육건(六乾). 칠감(七坎). 팔간(八艮)이라는 방위만 존재 한다. 따라서 유교 경전 어디에서도 소옷이 말하는 복희팔괘의 순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경증경(以經證經)'의 경전 해석 태도를 가지 고 있는 다산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 된다. '이경증경'의 경 전 해석 태도와 더불어 실증적인 학문 태도를 가지고 있는 다산의 입장 에서도 소옹의 복희팔괘차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다. 즉 소옹이 주장하는 복희팔괘차서는 인류의 질서와 맞지 않는 모순을 가지고 있 다. 부모가 존재하기 전에 자식이 생길 수 없는 것은 자연의 이치인데 도 불구하고, 소옹의 팔괘차서는 어머니가 생기기 전에 여섯 자식이 생 성되는 모순이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합리적인 이치를 존중하는 다산 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다산의 다음과 같은 비평도 같은 맥락에 서 이해할 수 있다.

태극은 음과 양이 섞여 있는 물이다. 그러므로 태극이 나뉘어 하나의 음과 하 나의 양이 생겨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하나의 양이 이미 순수한 양이라 면, 어떻게 해서 소음이 생겨날 수 있겠는가? 또 하나의 음이 이미 순수한 음 이라면, 어떻게 해서 소양이 생겨날 수 있겠는가? 만약 양 가운데 음을 포함 하고 있고, 음 가운데 양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의 양이 곧 태극이 고. 태극이 곧 하나의 음이 된다는 의미이다. 왜냐하면 섞여 있어 아직 분화되 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옹(邵雍)의 「복희팔괘차서도」에 근거해 보면, 태극이 반으로 쪼개져 음과 양이 되고, 양이 반으로 쪼개져 태양과 소음이 되며, 태양 이 반으로 쪼개져 건이 되고 태가 된다. 이러한 예를 미루어 보면, 건은 반으 로 쪼개져 하나의 음과 하나의 양이 되고, 곤도 또한 그러하다. (그렇다면) 이 건은 순수한 양의 괘가 될 수 없고, 곤도 순수한 음의 괘가 될 수 없으니, 이것 이 통하는 말인가? 28)

^{28) 『}易學緒言』、『定本 與猶堂全書 17』(다산학술문화재단, 2012), 154. "太極

위의 인용은 다산이 소옹의 팔괘차서도 중 태극, 양의, 사상, 팔괘의음양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소옹의 논리를 따르자면 결과적으로 팔괘의건과 곤은 순수한 양과 음이 될 수 없음을 논증한 것이다. 『설괘전』에서 건은 순수한 양을 상징하고, 곤은 순수한 음을 상징하므로, 소옹의논리와 모순이 된다. 따라서 다산은 합리적인 이치에 맞지 않는 소옹의팔괘차서도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다산은 소옹의 팔괘차서도는 성인이 괘를 그린 본래의 방법이 아님을 주장한다.

선천횡도(先天橫圖)는 원래부터 괘를 낳는 본래의 이치가 아니며, 또한 괘를 긋는 본래의 방법도 아니다. 하나가 둘을 낳을 때, 두 개가 일시에 함께 생겨나고, 둘이 넷을 낳을 때도 네 개가 일시에 함께 생겨난다. 마치 초목이 흙을 뚫고 나올 때 한 줄기가 두 가지로 갈라져 두 가지가 일시에 함께 생겨나는 것과 같이 선후의 순서가 없다. 두 가지가 또 네 곁가지로 갈라질 때, 네 곁가지가 일시에 함께 생겨나니 또한 선후의 순서가 없다. 29)

者陰陽混沌之物,太極分而生一陽一陰,可也.一陽旣是純陽,如何生得少陰?一陰旣是純陰,如何生得少陽.若云陽中包陰陰中包陽,是一陽仍是太極,太極仍是一陰,混沌仍未分矣.據圖,太極半破爲陰陽,陽半破爲太陽少陰,太陽半破爲乾爲兌.推此例而求之,則乾半破亦當爲一陰一陽,坤例亦然.是乾不得爲純陽之卦,坤不得爲純陰之卦,而可通乎?"

^{29) 『}易學緒言』, 『定本 與猶堂全書 17』(中산학会문화재단, 2012), 165. "鏞案, 先天橫圖固非生卦之本理, 亦非畫卦之本法. 然一生兩時, 兩個一時並生, 兩生四時, 四個一時並生. 如草木出土, 本只一幹分出兩枝, 兩枝一時並生, 並無先後之序. 兩枝又分出四條, 四條一時並生, 亦無先後之序. 今人取木條命之曰, 此是第一枝, 彼是第二枝, 未有不擊其非理者. 一太陽四太陰原屬非理. 一二三四既不分明, 九六七八將何所立. 算數之家有除本身之法, 然所謂本身必用實數, 不可以兄弟序次遂當本身之數. 荀氏八龍除其第三, 仍是七人, 不可曰五人也. 竹林七賢除其第四, 仍是六人, 不可曰三人也. 况無故無義自除其身, 乃取其所餘之數以爲本數, 抑何理也. 且揲蓍作卦之法, 每只一畫已有老陽老陰少陽少陰. 今先天之法畫到第二畫乃有此二老二少審如是也. 乾初九坤初六都不可解, 將若之何"

즉, 다산은 팔괘의 생성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지, 소옹의 논리처럼 일건천(一乾天), 이태택(二兑澤), 삼리화(三离火), 사진뢰(四震雷), 오손 풍(五巽风), 육감수(六坎水), 칠간산(七艮山), 팔곤지(八坤地)로 생성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이는 처지만물의 생성 이치와도 부합하는 것으로 초목에서 가지가 생성되는 이치와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다. 초목에서 생성되는 가지에 선후가 없는 것처럼 팔괘의 생성도 선후가 없으며 일 시에 함께 생성되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VI. 정이(程頤)의 의리학적 『역』해석에 대한 다산의 인식

『사고전서총목제요(四庫全書總目提要)』를 지은 사고관신은 호원(胡瑗, 993~1059)과 함께 정이(程頤, 1033~1107)를 유학적 『역』해석의 대 표자로 보고 있다. 정이의 『역전(易傳)』에 대한 제요(提要)에는 정이 역 학의 연원을 왕필과 호원으로 보고 있다.30) 왕필과 호원, 정이의『역』 해석이 모두 상수를 버리고 의리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보면, 사고관신 의 관점은 근거가 있다. 다만, 왕필은 현학적 『역』해석을 위주로 한 반 면, 호원과 정이는 유학적 『역』해석을 위주로 한 점이 다르다.

다산은 『역학서언』에서 정이의 역학에 대한 전문적인 논평은 남기지 않았지만, 주희의 『주역본의』에 대한 논평인 「주자본의발미(朱子本義發 微)」에 정이의 괘변설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그리고 『 주역사전』의 64괘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정이의 학설을 다수 인용하고 있다.『역학서언』과『주역사전』에 나타나 있는 다산의 정이의『역』해석 에 대한 언급은 대체로 긍정적이며, 때로 다산 자신의 이론을 뒷받침하 기 위한 논거로 제시되기도 한다.

³⁰⁾ 王雲五主持、『合印四庫全書總目提要及四庫未收書目禁燬書目(一)』(臺灣商務印書 館, 1978),「四庫全書總目提要」,一,經部,易類二,15쪽,"今考程子與金堂謝提 書.謂易當先讀王弼胡瑗王安石三家.謂程子有取於弼.不為無據."

예를 들어, 다산은 「주자본의발미(朱子本義發微)」에서 자신의 추이론의 근거로 삼기 위해 정이의 괘변설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내가 살펴보건대, 정이천의 『역전(易傳)』에서 수괘(隨卦), 고괘(蠱卦), 항괘(恒卦), 비괘(賁卦) 등 여러 괘에서 모두 추이의 방법을 쓰고 있는데, 그 문장이 분명하다.31)

이 글을 이어서 다산은 정이의 언급을 인용하고 있다.

정자가 말했다. "수괘에서 괘변으로 말했다. 건의 상효가 곤의 아래로 와서 자리했고, 곤의 초효가 건의 위로 가서 자리했다."³²⁾

그런데, 정이천의 『역전(易傳)』의 원문을 찾아보면, 다산의 위의 인용은 정확하지 않다. 즉, 다산의 인용 중 '수괘에서 괘변으로 말했다.'고한 부분은 정이천의 『역전(易傳)』에는 없는 부분이다.³³⁾ 정이천이 이말을 하지 않았는데, 다산이 잘못 인용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다산은 주희의 말을 정자의 말로 잘못 인용하고 있다.

정자가 말했다. "정괘(鼎卦)는 손괘(巽卦)에서 왔다. 음효가 오(五)로 나가 자리하고, 아래로 구이(九二)의 양효와 호응한다."34)

정이는 상수학의 괘변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

^{31) 『}易學緒言』, 『定本 與猶堂全書 17』(다산학술문화재단, 2012), 120. "案,伊川易傳,於隨疊恒責諸卦,皆用推移之法,其文歷然."

^{32) 『}易學緒言』, 『定本 與猶堂全書 17』(다산학술문화재단, 2012), 133. "程子曰:" 隨卦以卦變言之. 乾之上來居坤之下,坤之初往居乾之上."

³³⁾ 정확한 문장은 "謂乾之上九來居坤之下,坤之初六往居乾之上."이다. 程頤 撰, 王孝 魚 點校. 『周易程氏傳』(北京: 中華書局. 2011). 97 참조.

^{34) 『}易學緒言』, 『定本 與猶堂全書 17』(다산학술문화재단, 2012), 133. "程子曰:" 鼎卦自巽來,陰進居五,而下應九二之陽."; 朱熹 撰, 廖名春 點校, 『周易本義』(北京: 中華書局, 2009), 180, "卦自巽來,陰進居五,而下應九二之陽." 참조. 이러한 잘못 은 방인의 논문에서 이미 지적하였다. 방인, 「丁若鏞의「朱子本義發微」연구」, 『 다산학』19(2011), 14.

에, 다산이 자신의 추이론의 근거로 정이의 괘변설을 제시하고 있는 것 은 무제가 있어 보인다. 정이의 괘변설에 대한 입장은 『역전(易傳)』에 잘 나타나 있다.

『역전(易傳)』에 이르기를. 괘의 변화는 모두 건곤(乾坤)에서 비롯되었다. 선 유가 이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괘(賁卦)는 본래 태괘(泰卦)이다'라고 했다. 건곤이 중첩해서 태괘가 되었는데, 또 태괘에서 변한다는 이치가 있겠 는가? 건곤이 변해서 육자괘(六子卦)가 되고. 8괘가 중첩해서 64괘가 되니. 모두 건곤에서 변한 것이다.35)

즉. 정이는 괘의 변화는 건곤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이미 생성된 64 괘 중 어떤 괘에서 다른 어떤 괘가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이 는 분명 다산의 추이론과는 다르다.

다산은 추이론의 근거로 정이 역학을 제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 역사전』 곳곳에서 정이의 역설을 인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 다.

정자가 말했다. 성인이 이미 하늘의 자리를 얻었다면, 대덕을 갖춘 사람을 만 나는 것이 이로울 것이다.(乾卦)36) 정자가 말했다. 남자는 지위가 높고 여자는 지위가 낮은 것이 부부 관계의 변 하지 않는 도리이다.(恒卦)37)

이외에도 『주역사전』의 여러 곳에서 정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이 처럼, 다산이 정이의 역학에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정이

^{35) 『}易學緒言』、『定本 與猶堂全書 17』(다산학술문화재단, 2012), 138. "'程傳曰:" 卦之變,皆自乾坤.先儒不達,故謂賁本是泰卦.豈有乾坤重而爲泰,又由泰而變之理?乾坤 變而爲六子、八卦重而爲六十四、皆由乾坤之變也."; 程頤 撰, 王孝魚 點校, 『周易程 氏傳』(北京:中華書局, 2011), 124.

^{36) 『}周易四箋 I 』、 『定本 與猶堂全書 15』 (다산학술문화재단, 2012). 115. "程子曰 聖人既得天位.則利見在下大德之人."

^{37) 『}周易四箋 I』、『定本 與猶堂全書 15』(다산학술문화재단, 2012), 359, "程子曰 男尊女卑.夫婦居室之常道也."

에 대한 존승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산은 주희의 역학에 대해서도 매우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 다산 자신의 역학이 모두 주자의 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다산의 대표적인 역학 저작인 『주역사전』의 첫머리에 「사전소인(四箋小引)」을 두고 있는 것에도 잘 알 수 있다. 다산은 「사전소인(四箋小引)」에서 자신의 역리사법이 모두 주자의 뜻이라고 선언하고 있지만、38) 실제 다산 역학과 주희 역학에는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 다산 역학과 정이 역학도 기본적인 성격이 서로 다르다. 따라서 정이와 주희에 대한 다산의 긍정적인 태도는 정주학에 대한 존중에 다름이 아니라고이해할 수 있다.

다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괘사와 효사가 모두 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러한 상을 논리적인 근거로 설명해내는 것이 중요하며, 그래서 역리사법이라는 역해석방법론이 다산 역학의 핵심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산이 역리사법을 통해 해석해 낸『주역』괘효사의 의미는 주희나 정이의 해석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다산이 주희와 정이의 해석을 빈번하게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VII. 양만리(楊萬里)의 사학적(史學的) 역학과 다산 역학

양만리(楊萬里, 1127~1206)는 송대의 유학자로 자가 정수(廷秀)이고 자호가 성재(誠齋)이며, 길수(吉水, 지금의 江西省 吉水縣) 사람이다. 39) 그의 역학 저서인 『성재역전(誠齋易傳)』은 사학적 『역』해석을 대표하는 저서이다. 이 책은 정이천 역학을 근본으로 하면서 역사적 사실

^{38) 『}周易四箋 I』, 『定本 與猶堂全書 15』 (다산학술문화재단, 2012), 31-32.

³⁹⁾ 王雲五主持, 『合印四庫全書總目提要及四庫未收書目禁燬書目(一)』(臺灣商務印書館, 1978), 「四庫全書總目提要」, 一, 經部, 易類二, 15쪽. "宋楊萬里撰,萬里字廷秀,自號誠齋,吉水人."

로 경문을 증명하고자 했다. 이 책의 서명은 처음에 『역외전(易外傳)』 이었으며, 당시 정이천의 『역전(易傳)』과 합본하여 『정양역전(程楊易傳) 』으로 간행되었다.40) 이를 통해 보면, 양만리는 정이천의 『역전(易傳)』 이 유학적 의리를 잘 밝혔으며, 따라서 자신은 이에 더해 역사적 사실 로 『주역』의 경문을 증명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책 이름을 처음에 『역외전(易外傳)』이라 했다.

『성재역전(誠齋易傳)』은 『주역』 괘효사를 해석하면서, 대부분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의 언행을 인용하여 논증하고 있다. 예를 들어, 건괘(乾 卦) 구삼(九三) 효사는 그 위치는 위태롭지만 허물이 없다는 의리를 담 고 있다. 그런데 역사를 통해 보면 위태롭지만 허물이 있는 경우가 있 다. 치우(蚩尤), 후예(后羿), 왕망(王莽), 동탁(董卓)은 신하의 위치에 있 을 때 임금의 자리를 찬탈하고자 했으며, 임금의 자리에 올랐을 때는 아래 사람을 교만하게 대하고 근신할 줄 몰랐기 때문에 스스로 화를 자 초했다.41) 이것은 역사를 인용해 건괘 구삼효의 의리를 증명한 것이다. 또, 건괘(乾卦) 상구효(上九爻)의 예를 들어보면, 건괘 상구효의 의리는 임금의 자리에 있을 때 '항룡(亢龍)'의 교훈을 잘 새겨야 한다는 것이다. 양만리는 양나라 무제와 당나라 현종이 만년에 '항룡'의 교훈을 새기지 못해서 큰 잘못을 범했다는 점을 들어 이를 증명하고 있다.42)

다산이 양만리의 『성재역전(誠齋易傳)』을 참고하였거나 인용한 흔적 은 거의 없다. 따라서 다산이 양만리의 사학적 『역』해석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하였는지 알 수는 없다. 그러나 다산의 『역학서언』이나 『주역사 전』을 통해 다산의 역학과 양만리의 역학이 어떻게 다른 지는 파악할 수 있다.

⁴⁰⁾ 王雲五主持、『合印四庫全書總目提要及四庫未收書目禁燬書目(一)』(臺灣商務印書 館, 1978),「四庫全書總目提要」, 一, 經部, 易類二, 15\, "是書大旨本程氏,而多 引史傳以證之.初名易外傳,後乃改定今名.宋代書肆,曾與程傳並刊以行,謂之《程楊易 傳》."

⁴¹⁾ 楊萬里 撰, 宋淑洁 點校, 『誠齋易傳』(北京: 九州出版社, 2008), 2; 朱伯崑, 『易 学哲学史(第二卷)』(北京: 华夏出版社, 1995), 367-368.

⁴²⁾ 楊萬里 撰, 宋淑洁 點校, 『誠齋易傳』(北京: 九州出版社, 2008), 4; 朱伯崑, 『易 学哲学史(第二卷)』(北京: 华夏出版社, 1995), 368.

다산도 『주역』의 괘효사 중 역사적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기제괘(旣濟卦) 구삼(九三)의 "고종이 귀방을 정벌하여 삼년 만에 이겼다. 소인은 써서는 안 된다."43)는 효사에 대해역사서인 『한서(漢書)·서강전(西羌傳)』의 "은나라 왕실이 중간에 국력이 쇠락하여 제후들이 모두 반란을 일으켰다. 고종에 이르러 서융(西戎)과 귀방(鬼方)을 정벌하였는데, 삼년 만에 이겼다."44)라는 부분을 인용하면서 역사적 사실임을 확인하고 있다. 또, 명이괘(明夷卦) 구삼(九三)의 "기자(箕子)가 동이(東夷)를 교화시켰다."45)라는 효사에 대해 다산은분명히 기자가 동이인 조선으로 가서 문명으로 다스렸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46) 또, 귀매괘(歸妹卦)육오(六五)의 "제을(帝乙)이 누이동생을시집보냈다."47)라는 효사에 대해 다산은 당시 은나라 주(紂)의 아버지인 제을이 진실로 누이동생을 시집보낸 사실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48)이외에도 진괘(晉卦) 괘사인 "강후가 말을 하사했다."49)는 내용도역사적 사실로 보고 있다.50)이러한 사례를 통해 볼 때, 다산이 『주역』의 경문에 나타나는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다산의 『

^{43) 『}周易四箋Ⅱ』, 『定本 與猶堂全書 16』(다산학술문화재단, 2012), 205, "九三,高 宗伐鬼方,三年克之,小人勿用."

^{44) 『}周易四箋Ⅱ』, 『定本 與猶堂全書 16』 (다산학술문화재단, 2012), 206, "西羌傳云: '殷室中衰,諸侯皆叛.至高宗征西戎鬼方,三年乃克."

^{45) 『}周易四箋 I』, 『定本 與猶堂全書 15』 (다산학술문화재단, 2012), 388, "六五,箕 子之明夷."

^{46) 『}周易四箋 I』, 『定本 與猶堂全書 15』(다산학술문화재단, 2012), 388, "此明夷之旣濟也.旣濟自泰來.震方之外,曰有坤國,是東國也.(即朝鮮)乾王之族出于外國,遂正君位,非箕子而誰也?南面以治之,夷國以明,箕子之明夷也."

^{47) 『}周易四箋Ⅱ』, 『定本 與猶堂全書 16』(다산학술문화재단, 2012), 142, "六五,帝 乙歸妹."

^{48) 『}周易四箋Ⅱ』, 『定本 與猶堂全書 16』 (다산학술문화재단, 2012), 144, "疑帝乙當時(紂父乙),眞有嫁妹之事."

^{49) 『}周易四箋 I』, 『定本 與猶堂全書 15』(다산학술문화재단, 2012), 376, "晉,康侯 用錫馬蕃庶."

^{50) 『}周易四箋 I』, 『定本 與猶堂全書 15』(다산학술문화재단, 2012), 377, "然帝乙 歸妹, 高宗伐鬼方, 箕子明夷之類, 皆實有是事, 則康侯錫馬, 亦必故實也。"

역』해석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괘효사가 어떤 방식으 로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지 그 과정에 더 방점을 두고 있다. 즉. 다산은 『주역』의 괘효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역사적 사실 을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그 해석방법론이 바로 역리사법이며, 역리사법은 64괘 384효 전체 괘 효사에 적용되고 있는 다산 역학의 보편적 법칙이다. 따라서 다산 역학 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바로 이 해석의 과정이며, 해석의 결과에 대해 서는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해석의 과정이 올바르면, 그 해석 의 결과가 역사적 사실이든지 아니면 동식물의 상징이든지 간에. 그 결 과는 바르게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다산의 역학은 양만리의 역학과 근본적인 지향점이 다르며, 『사고전서총목제요(四庫全書總目提 要)」의 '양파'의 분류에서 볼 때 다산의 역학은 상수파에 속하며, 의리 파에 속하지 않는다. 이러한 차이점은 다산 역학과 정이 역학의 비교에 도 똑같이 적용된다.

Ⅷ. 결론

이상에서 본 연구는 서론에서 다산의 중국역학사 인식이 어떠한 것 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적인 틀로서 『사고전서총목제요(四庫全書總目提要)』의 중국역학사 분류법인 ' 양파육종'을 제시했다. 그리고 연구 자료로 다산의 역학 저서인 『역학서 언』을 활용했다.

본론에서는 『역학서언』의 자료를 활용해 '양파육종'에 대한 다산의 인식이 어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차례로, 한대(漢代) 상수학, 경방과 초연수의 재이설(災異說), 왕필의 『역』해석, 송대(宋代) 도서학 (圖書學), 정이(程頤)의 의리학적 『역』해석에 대한 다산의 인식을 살펴 보았는데, 이 다섯 종에 대한 분석은 기본적으로 다산의 『역학서언』에 나오는 자료를 바탕으로 했으며 나머지 한 종인 양만리(楊萬里)의 사학 적(史學的) 『역』해석에 대한 다산의 인식은 다산의 양만리 역학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를 찾을 수 없어서 양만리 역학과 다산 역학을 비교분석하는 방법으로 간접적인 평가를 시도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즉, 다산 역학은 '양파'의 분류법상 상수파에 속하며, '육종'의 분류법상 한대(漢代) 상수학에 속한다. 다산은 『역학서언』의 「이정조집해론(李鼎祚集解論)」에서 "괘변(卦變)과 효변(爻變)의 법칙, 호체(互體)와 복체(伏體)의 예, 교역(交易)·변역(變易)·반대(反對)·반합(胖合)의 묘가 하나라도 갖추어 있지 않음이 없다."51) 또 "오늘날의 학자들이 진실로 『주역』을 공부하고자 한다면, 오직이정조의 『주역집해(周易集解)』 10권을 보배로 삼아야 할 것이다."52)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다산의 언설은 다산 역학의 지향점이 어디인지를 매우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다산 정약용의 중국역학사 인식에 대한 연구는 우리 학계의 다산 역학 연구에 있어서 최근까지 연구되지 못한 분야이며,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새로운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다산 역학의 역학사적 위치와 그 근거에 대해 새로운 논의와 시각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나아가 다산의 중국역학사 인식에 대한 연구는 다산 역학의 한국적특징과 재창조가 어떠했는지를 규명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다산 정약용의 중국역학사 인식에 대한 연구는 당시조선과 청나라의 학술 교류가 어떠하였으며, 이를 통해 조선과 청나라의 학술계의 수준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미있는 시각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 정약용(丁若鏞), 중국역학사(中國易學史), 역학서언(易學緒言),

^{51) 『}易學緒言』, 『定本 與猶堂全書 17』(다산학술문화재단, 2012), 53. "然卦變爻變之法, 互體伏體之例, 交易變易反對牉合之妙, 無一不露其豹斑."

^{52) 『}易學緒言』,『定本 與猶堂全書 17』(다산학술문화재단, 2012), 53. "今之學者 誠欲學易, 唯取李鼎祚集解十卷, 以爲拱璧."

사고전서(四庫全書), 양파육종(兩派六宗), 상수학(象數學)

원고접수일: 2017년 5월 5일 심사완료일: 2017년 6월 7일 게재확정일: 2017년 6월 17일

참고문헌

- 『周易四箋』、 丁若鏞(朝鮮) 編、 [純祖8年(1808)]、 奎 4918-v.1-12、
- 『易學緒言』、 丁若鏞(朝鮮) 編、 [19世紀 以後]、 奎 5592-v.1-4、
- 『易學緒言』、『定本 與獨堂全書 17』, 다산학술문화재단, 2012.
- 『周易四箋 I·Ⅱ』. 『定本 與猶堂全書 15·16』. 다산학술문화재단, 2012.
- 鄭玄 撰. 王應麟 編. 『周易鄭康成註』. 『四庫全書』 文淵閣本. 驪江出版社 影印本. 1988.
- 王弼·韓康伯撰.『周易註』.『四庫全書』文淵閣本. 驪江出版社 影印本, 1988.
- 王弼·韓康伯 注. 陸德明 音義. 孔穎達 疏. 『周易註疏』. 『四庫全書』文淵閣本. 驪江出版社 影印本. 1988.
- 李鼎祚 撰. 『周易集解』. 『四庫全書』 文淵閣本. 驪江出版社 影印本, 1988.
- 吳澄. 『易纂言』. 『四庫全書薈要』. 吉林人民出版社 影印本, 1997.
- 黃宗羲 撰. 『易學象數論(外二種)』. 中華書局, 2010
- 黃宗羲 撰. 全祖望 續修. 王梓材 校補. 『宋元學案』. 河洛圖書出版社, 中華民國 64年.
- 余嘉錫.『四庫提要辨證』. 國立北平圖書館, 1935
- 王雲五 主持. 『合印四庫全書總目提要及四庫未收書目禁燬書目(一)』. 臺灣 商務印書館. 1978.
- 朱熹 撰. 廖名春 點校. 『周易本義』. 北京: 中華書局, 2009.
- 胡渭 撰. 鄭萬耕 點校. 『易圖明辨』. 北京: 中華書局, 2008.
- 程頤 撰. 王孝魚 點校. 『周易程氏傳』. 北京: 中華書局, 2011.
- 楊萬里 撰. 宋淑洁 點校. 『誠齋易傳』. 北京: 九州出版社, 2008.
- 朱伯崑. 『易学哲学史』. 北京: 华夏出版社, 1995.
- 다산 정약용 저. 『역주 주역사전』. 방인 · 장정욱 역. 서울: 소명출판, 2007.
- 김인철. 『다산의 주역해석체계』. 서울: 경인문화사, 2003.

황병기. 「다산 정약용의 역상학」.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국문초록

다산 정약용의 중국역학사(中國易學史) 인식

- 『역학서언(易學緒言)』을 중심으로

임재규(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본 연구는 다산의 중국역학사 인식이 어떠한 것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적인 틀로서 『四庫全書總目提要』의 중국역학사 분류법인 '양파육종'을 제시했다. 그리고 연구 자료로 다산의 역학 저서인 『역학서언』을 활용했다.

본론에서 필자는 『역학서언』의 자료를 활용해 '양파육종'에 대한 다산의 인식이 어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즉, 다산 역학은 '양파'의 분류법상 상수파에 속하며, '육종'의 분류법상 한대漢代 상수학에 속하다.

다산 정약용의 중국역학사 인식에 대한 연구는 우리 학계의 다산 역학 연구에 있어서 최근까지 연구되지 못한 분야이며, 따라서 이 분야 에 대한 새로운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다산 역학의 역학사적 위치와 그 근거에 대해 새로운 논의와 시 각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정약용(丁若鏞), 중국역학사(中國易學史), 역학서언(易學緒言), 사고전서(四庫全書), 양파육종(兩派六宗), 상수학(象數學) Abstract

A Study on Tasan Cheong Yakyong's Understanding about Chinese History of Yiology

- Focusing on Yixue Xuyuan(易學緒言)

Im, Jae-kyu(Seoul National Univ.)

This article aims at elucidating Tasan Cheong Yakyong's understanding about the Chinese History of Yiology. For this purpose I used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Chinese Yiology in Siku Quanshu(四庫全書), that is 'Liangpai Liuzong(兩派六宗)'. And I made use of Yixue Xuyan(易學緒言) as a basic research material.

In the body of this article, I analyzed the Tasan Cheong Yakyong's understanding about 'Liangpai Liuzong(兩派六宗)'. From this analysis, I had come to the conclusion that Tasan's Yi studies belong to the School of Images and Numbers(象數派), and also belong to the School of Images and Numbers in the Han period(漢代象數學).

Studies on Tasan Cheong Yakyong's understanding about the Chinese History of Yiology up to recently are not carried out, so this article has a significance of the new research in this area.

Key words : Cheong Yakyong, Yixue Xuyan(易學緒言), *Siku* Quanshu(四庫全書), Liangpai Liuzong(兩派六宗),School of Images and Numbers(象數派)